

잡아함 125. 마법경

날짜: 1월 16th, 2025

출처: <http://www.dhamma.kr/wp/?p=17754>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마구라산에 계시었다. 그 때에 라다라는 시자 비구가 있었다. 그 때에 세존께서는 라다 비구에게 말씀하시었다.

“모든 물질로서,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거나 안이거나 밖이거나 굵거나 가늘거나 좋거나 더럽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그 일체는 다 악마의 짓이요, 느낌·생각·지어감·의식도 또한 그와 같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라다에게 말씀하시었다.

“물질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덧없는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느낌·생각·지어감·의식은 항상된 것인가. 항상되지 않은 것인가.”

“항상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일 항상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덧없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로서 과연 거기서 <나>와 <다른 나>와, 그 둘의 합한 것을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므로 라다여,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은 물질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낸다. 싫어하기 때문에 바라지 않고, 바라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며, 해탈하였기 때문에 해탈한 줄을 안다. 그래서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서고, 할 일은 이미 마쳐 다시는 후생 몸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라다 비구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여 밟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